

#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AUTUMN 2017 | VOL. 187



가을 이야기

예쁜 미소를 지닌 임재원 양과 하성준 군은 올해 아름다운 청소년 주인공 중 2명입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트럼펫을 포기해야 했지만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예술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한 임재원 양, 그리고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창조적 혁신가로서의 CEO를 꿈꾸며 3D 프린팅 기술로 장애인들을 위한 의수를 만드는 하성준 군에게서 18세의 방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꿈을 향한 열정과 착한 마음, 함께 들어보실래요? (13~15P)

사진 | 이록 사진작가· Looks Studio

- 04 홀트다음
- 07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 10 행복한 가족 만들기
- 13 홀트 인터뷰
- 16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너라서
- 18 싱글맘 Jump with baby
- 20 Love In World
- 22 희망풍경 1
- 24 희망풍경 2
- 26 나눔기업
- 28 나눔이웃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87호 · 계간 **발행일** | 2017년 9월 15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김병수(홍보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유덕진(해외사업팀장), 박꽃송이(나눔협력팀장), 박재범(나눔지원팀장), 이창신(일신복지타운), 신유정(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 02-331-7171 FAX: 02-331-7149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장 | 이해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임 부웅 이사(HICS 부회장) |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북상사 대표) | 김영희 이사(전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본부** T.02)331-7000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1588-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신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 대구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T.062)363-8878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T.032)424-583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032)424-1391  
 홀트미추홀 T.070)8210-1601  
 전주영아원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롬돌 www.holtarum.or.kr T.02)334-4614  
 고운돌·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침돌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djclover.or.kr T.042)583-4006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53)654-0181  
 광주클로버 www.holtlove.or.kr/gj-clover T.062)361-5900

**국제개발협력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4006-4116  
 탄자니아(홀트드림센터) T.02)331-7085  
 네델(홀트드림센터) T.02)331-7085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전 국가가 타들어 가고 있어 우리 모두는 가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은 많은 비가 내려 집이 물에 잠기고,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 앞에서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해의 절반을 지나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올 초에 계획한 일들이 얼마나 성과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홀트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 주는 입양, 미혼한부모 지원,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및 해외지원 사업 등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 만족함보다는 미흡한 점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기 동안 홀트는 미션, 비전, 핵심가치, 행동약속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미션, 비전, 핵심가치, 행동약속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숙지하고 업무를 하는 현장에서 꼭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탄자니아 홀트드림센터의 개소식을 잘 마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센터 신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학교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강동에 장애인 복지관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건축 완공 예정으로,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홀트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 48번째에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입양정책이 들어있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복지가 더욱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에 맞춰 홀트도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복지사업들을 잘 점검하고 마무리해서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홀트를 위해 헌신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홀트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 100년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홀트 '홀트다움'을 말하다

정년을 앞둔 간부에서부터 입사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입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처에서 일하는 홀트 전 직원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홀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64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이 서로 다른 듯 보였지만,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통해 서로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홀트다움'이란 홀트의 정체성을 미션, 비전, 핵심가치, 행동약속의 네 가지 개념으로 함축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홀트는 이를 가치기반으로 삼아 이전 보다 나은 홀트, 새로워진 홀트로 거듭나리라 다짐했습니다.

##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 홀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오늘도 미션 수행 중

'홀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55년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62년간 홀트는 세상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 홀트다움을 규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린 질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홀트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필요를 찾아내고 이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홀트가 세상에 기여하는 모습은 조금씩 변화해 왔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고,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트의 존재 이유, 즉 홀트의 미션입니다. 홀트가족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 홀트 다움

## 자랑스러운 더 큰 가족 홀트,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을 꿈꾸다

'홀트가족이 바라는 홀트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며 꿈의 지향점은 어디일까?' 홀트다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두 번째로 던진 질문입니다. 미래의 꿈을 그리기에 앞서 지난 62년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일, 아동과 가정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일,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 홀트는 먼저 생각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항상 새로운 꿈을 꾸었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홀트가족은 지난 62년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의 가슴 벅찬 비전

을 앞으로도 꾸준히 실현해 갈 것입니다. 홀트다움의 두 번째 조건은 홀트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실현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더 큰 가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한편,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창립 65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6대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비전추진전략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전국적 가족지원체계 구축, 국내외 후원/결연 2배 성장, 홀트이미지/브랜드 강화, 인사/교육제도 및 IT 기반 선진화, 홀트다움 조직문화 구축, 분야별 전문가가 활약하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목표달성을 통해 홀트다움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 미션



#### 사랑을 행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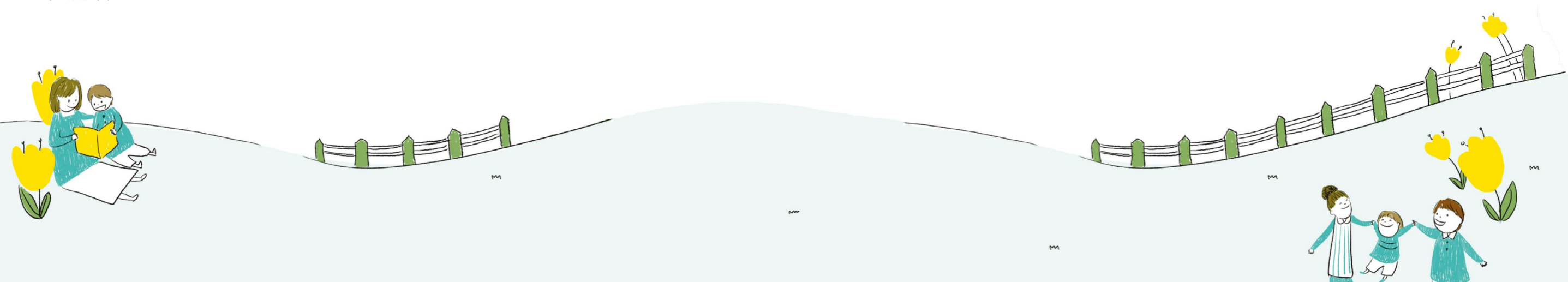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한다

### 비전



####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

자랑스러운 더 큰 가족 가슴 벅찬 홀트




###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홀트, 핵심가치가 답이다

‘홀트는 어떻게 일하는가?’, ‘홀트가족이 일하는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홀트다움을 찾기 위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답을 바로 핵심가치에서 찾았습니다. 하고 있는 일의 성격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상이할 수도 있겠으나, 홀트가족이면 반드시 공유하고 공감해야 하는 핵심가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62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100년 이후에도 홀트가족이 공유하여야 할 핵심가치는 신뢰, 소통, 즐거움, 전문성, 성장이라는 5가지로 합의되었습니다. 핵심가치는 홀트가 일하는 원칙과 기준으로, 홀트다움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 행동약속, 기본부터 충실하게




홀트다움을 정의하기 위해 우리는 홀트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를 먼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홀트답게 생각하고 홀트답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미션과 비전을 구현하고 핵심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행동약속을 정한 것입니다. 홀트다움은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행동약속을 홀트다움의 네 번째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7가지 행동약속을 면면히 살펴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약속을 지키며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먼저 인사하기 등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실천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부터 튼튼히, 기본부터 충실하게 실천하는 홀트. 이것이 바로 홀트다움의 또 다른 중요한 조건입니다.

### 홀트다움, 가꾸며 지켜가야 할 우리들의 즐거운 과제

홀트다움은 우리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며 세상을 향한 약속입니다.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공감 및 합의를 통해 홀트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행동약속으로 도출된 홀트다움을 가꾸고 지켜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하리라 다짐하며 홀트와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비전2020’을 성취하는 2020년의 홀트,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의 비전을 성취하는 2055년의 홀트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_박소현 팀장 · 복지전략팀



-  **믿음을 지킵니다**
-  **서로 협력합니다**
-  **함께 즐겁게 일합니다**
-  **최고의 역량을 갖추니다**
-  **바람직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 사랑을 가득 담아 찰칵!

“재! 여기 보세요~ 까꿍!!” 경기도 고양시, 한적한 곳에 위치한 스튜디오가 시끌벅적합니다. 주변 풀숲과 잘 어우러진 회색의 건물로 들어가 보니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진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촬영이었는데, 오늘 사진을 찍는 아이들은 무려 13명입니다. 하지만 숙달된 전문가의 아이 달래기 기술로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북적북적 시끌벅적, 아이들과 함께 한 촬영 현장 소식입니다.



##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아이들

올해로 8년째, 마이대디스튜디오에서는 돌 전후 아이들의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일을 맞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오늘은 12개월 전후의 아이들 13명이 스튜디오로 모였습니다. 아이들 한 명에 위탁어머니 한 명씩, 서른 남짓한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작지 않은 공간이지만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낯선 환경에 때를 쓰거나 우는 아이들을 달래려 어른들의 재롱잔치가 열리지만, 이런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기들은 세상 순수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도망치기 바쁩니다. “자, 민서야 여기 봐야지~ 웃어볼까? 민서 여기 보세요~” 꼬까옷을 입고 귀여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아기들은 위탁어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촬영에 임합니다. 방긋방긋 환하게 웃는 미소천사도 있는 반면에 스튜디오가 떠날 듯이 우는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위탁어머니와 사진 작가의 각고의 노력 끝에 찍은 사진은 앨범으로 제작됩니다. 아이들이 입양을 가거나 시설로 갈 때,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앨범이죠. 성장하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릴 때 자신이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아이들에게요.



### 아빠의 마음으로 찍는 사진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홀트와 인연을 맺게 됐죠. 전에는 개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홀트 사무실로 가서 촬영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촬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식 스튜디오가 아니니까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아서, 담당 선생님께 힘드시더라도 아기들을 데리고 저희 스튜디오로 오시면 어떠냐고 제안했죠. 그렇게 매달 10명 이상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앨범을 제작해주고 있어요.” 구슬땀을 흘리며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다 잠시 틈이 난 마이대디스튜디오 오장석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재능기부를 지속할 수 있었는지 하고요. “이 일을 20년 정도 하면 아이들 중 누구 하나라도 나중에 커서 스튜디오에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봐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웃음). 지금까지 촬영한 아이가 천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더 예쁘고 좋은 앨범 만들어주고 싶어요.”

홀트

글\_우은영·홍보팀



1 아기가~ 여기 보렴!  
2 울며 때를 쓰다가도 위탁어머니 품에서는 안전해지는 아이  
3 마이대디스튜디오 오장석 대표

# 2018

## 수첩·달력 이벤트

홀트는 아이들의 멋진 스튜디오 사진으로 달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탁어머니는 달력 제작을 의식(?)하였는지 사진작가에게 부탁합니다. “예쁘게 찍어주세요~우리 애도 달력에 한 번 나와야지” 매년 제작되는 홀트 달력은 전국 각지에 있는 내부 직원뿐 아니라 후원자, 기업, 위탁어머니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올해는 어떤 아이가 홀트 달력의 한달을 장식하게 될까요?

올해 겨울에 2018년 수첩·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예쁘고 멋진 사진 기대해주세요.

- **탁상달력**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란 주제로 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예쁘고 사랑스런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스런 미소와 함께 매일 매일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보세요~!  
- 재능나눔 : 캘리그라피(강병인), 사진후원(마이대디 스튜디오)
- **수첩**  
소지하기 편리한 130mmx 194mm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홀트는 '행복한 가족만들기 100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동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맞춰 홀트는 입양 뿐 아니라 미혼한부모, 다문화가정 등에서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족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중기획 '행복한 가족 만들기' 코너에서 세 번째로 소개할 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이란 서로 다른 국적,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인식이 있어 외국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인은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중 다문화가족의 수는 40만 명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다문화가족은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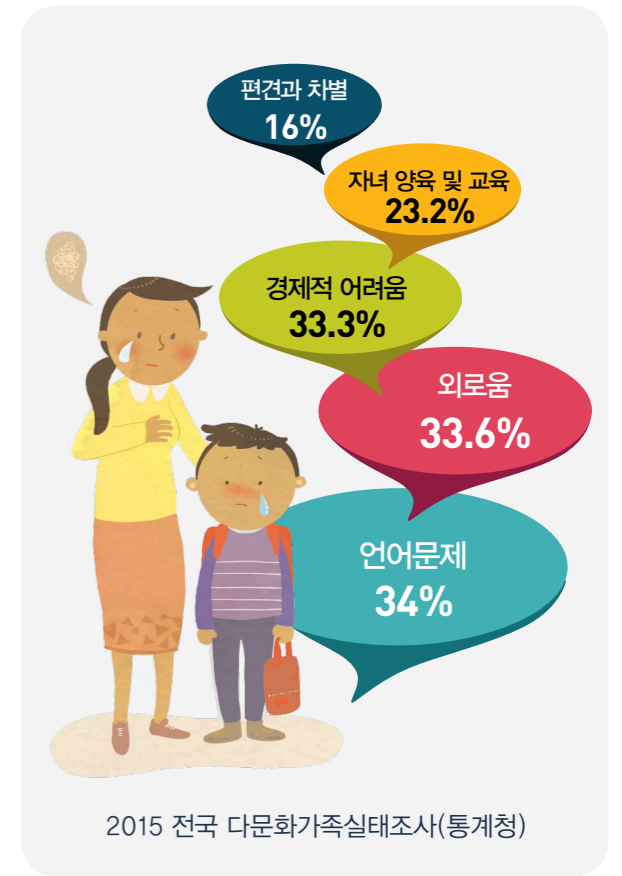
'2015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말에 결혼이민자들은 첫 번째 대담으로 '언어문제'(34%)를 꼽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외로움'(33.6%), '경제적 어려움'(33.3%), '자녀 양육 및 교육'(23.2%), '편견과 차별'(16%)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은 다른 한국가족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간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외로움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부모가 많은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에 비해 다문화가족의 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 부족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이 고를 겪고 있습니다.

### 함께 어울리는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이러한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생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정보제공, 역량 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지원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 사회통합, 인권 교육 등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 확립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출산과 임신, 지리적 여건으로 센터에 방문하기 힘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은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2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선생님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학습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장히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기 어려워하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양육에 두려움을 가진 결혼이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자녀의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주 양육자가 외국인일 경우, 언어적으로 발달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도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언어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부모 상담을 통해 가정에서도 언어축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문화 자녀는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개발하고 그에 따르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총 9명의 직원이 모여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효과처럼, 우리의 적은 노력이 다문화가족에게 큰 긍정의 변화가 되어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과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편견과 선입견 없이 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마리아의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하루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마리아예요~ 한국에 온지 8년 됐어요. 아들 두명과 딸 한명이 있는데, 가족 모두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 오전 10시 - 요리 교실

방학 중인 아들과 함께 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요리 교실에 참여했어요. 스페인 가정식, 일본 도시락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이가 신기해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은 멕시코의 퀘사디아를 만들어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 근처 공원에 나가서 함께 먹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 오후 1시 - 한국어 교실

한국어 교실 TOPIK반에서 한국어공부를 해요. 한국에 온지 8년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어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3명이나 있으니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이번엔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한국어 TOPIK 4급을 취득할거예요.



## 오후 3시 - 언어발달달고육

우리 막내는 언어발달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언어발달지도사선생님과 1:1로 언어발달수업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예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은 한국어로 말도 잘하고, 말하기 속도도 엄청 빨라졌어요. 한국어실력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 오후 7시 - 뮤지컬 관람

오늘 저녁에는 남편과 아이들하고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가 된 것 같아요.



저의 하루를 잘 보셨나요? 앞으로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이 배우고 적응해서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마리아가 될 거예요~!!

# 홀트와 함께 보다 깊숙이 꿈을 아로새기다



'제11회 아름다운 청소년'  
엄재원 & 하성준 학생

재원 양과 성준 군은 참 맑은 웃음을 지녔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자신들만의 힘으로 꿈을 좇고 있지만 힘든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꿈을 지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두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마음을 지녔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꼭 꿈을 이루어 어려운 이웃들과 그 재능을 나누고, 조금이나마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엄재원·하성준 학생. 그들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뜨겁고도 아름다운 불꽃을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 Interview



### 위로와 미소를 주는 최고의 트럼펫 연주가를 꿈꾸며

서울예술고등학교 음악과 2학년 엄재원 학생

재원 양은 하얀 피부만큼이나 미소가 참 예쁜 소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성장 과정을 생각하면 그 미소 안에 꿈을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인하게 자리하고 있을지 그저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녀는 악기를 전공할 만한 형편이 못됐습니다. 5~6세 즈음 조부모님의 빛을 부모님이 떠간게 되면서 집안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이 경제로 남의 손에 넘어가면서 온 식구가 거리에 나앉아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몇 년간의 고생 끝에 겨우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긴 했지만,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만나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자 버팀목이 되어준 트럼펫을 계속하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부모님이 예술중학교 입학 반대하신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입시에 성공한 후 첫 등록금만 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장학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온 마음을 다해 설득했죠.”

결국 재원 양의 부모님은 입학을 허락했고, 그녀는 약속대로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닌 후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했습니다. 예술 전공자들에게 당연시되는 개인 레슨 한 번 없이

그 경쟁률 높은 학교에 수석 입학이라니, 본인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분명 음악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간절함이 빛어낸 쾌거겠지요.

### 길을 잃을 찰나, 홀트를 만나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재원 양의 실력은 그야말로 일취월장이었습니다. 각종 콩쿠르에 출전해 수상 경력을 쌓은 것은 물론 장학금 역시 꾸준히 받아왔죠. 오전 5시부터 틈틈이 하루 7시간 이상, 방학에는 8~9시간씩 연습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변수가 생겼습니다. 봄부터 등록금이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부 장학금을 신청해보기도 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도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휴학 후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생님이 홀트의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실낱같은 빛 한 줄기...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너무나 절실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바로 휴학 신청을 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2차 면담을 준비한 것만큼 잘 보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안되겠구나 낙담하고 있던 중 집으로 합격 전화가 온 거예요~ 순간 그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이 스르륵 지나가며 어찌나 감정이 북받쳐 오르던지 어머니를 붙잡고 영영 울어버렸어요. 제게 이런 기회를 준 홀트에게 정말 감사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재원 양은 아름다운 청소년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또 하나의 꿈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귀감이 되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 자신의 음악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트럼펫 연주가가 되고야 말겠다는 것.

요즘 서울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녀는 기회가 된다면 미국 줄리어드 음악대학교나 유럽 트럼펫 전문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바람을 살짝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연주를 선보이는 그녀의 뮤즈, 엘리슨 발숨처럼 훌륭한 연주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미소를 주고, 더 나아가 소외계층의 재능 있는 친구들에게 음악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지금까지 그녀가 보여준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머지않아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가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 세상을 놀라게 할 창조적 혁신가, 미리 만나보실래요?

포항공고등학교 2학년 하성준 학생

성준 군의 프로필을 보면 재원 양과는 또 다른 면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세에 혼자 힘으로 3D 프린터를 처음으로 제작한 이후, 2016년 ‘3D 프린팅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신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키보드로 출전해 경북대 총장상을 수상했으며, 절단 장애인을 위한 3D 프린팅 의수 제작 정보 제공 및 봉사 단체인 ‘다섯손가락’과 3D 프린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교류하는 ‘대한청소년 3D 프린팅 연합’을 창립한 건 쉽게 업무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의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예전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시설에 봉사를 다니면서부터예요. 어느 날 몸이 마비된 아주머니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산책을 하는데, 한글을 잊지 않기 위해 컴퓨터 타이핑을 자주 하고는 있지만 키보드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키보드의 특정 부분을 몸에 편한 형태로 돌출 혹은 변형시키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고, 이 아이디어로 관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까지 거두게 됐는데요. ‘비록 당장은 여건이 안 돼 직접 제작해드릴 수는 없지만 내 능력으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의수를 제작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인 ‘다섯손가락’과 27개교 7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청소년 3D 프린팅 연합’. 수십 번을 요청하고 부탁해 무료로 장소를 대관, 명사 초청 강연이나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는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이 그저 행복할 뿐.

###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CEO 하성준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는 항상 자신을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CEO 하성준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18세 청소년의 자기소개치고는 꽤 당돌하지만 그는 이 한마디가 자신의 꿈과 열정, 그리고 삶의 방향을 오롯이 담아낸다고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좀 더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 누구나 웃을 수 있는 세상으로... 그래서 전 스티브 잡스와 엘론 머스크처럼 사회와 세계에 이로운 영향으로 충격을 가져다주는 창조적 혁신가로서의 CEO가 돼 3D 프린팅과 인공지능 분야를 통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기술경영과 적정기술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창조적 기업인을 양성하는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에 선발돼 2년간 70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그곳 동기들과 초음파를 이용한 스마트 LED와 한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방식의 점자 프린터를 연구하기도 했으며, 기아자동차 에코다이나믹스 원정대원으로 말레이시아에 방문해 현지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제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꿈을 위해 활동을 조금 줄이고 공부에 더 매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입니다.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대회에 지원한 데는 그런 고민도 크게 작용했어요. 어른들이 ‘당장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데 그런 건 대학 가서 하면 어떨겠니?’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조금은 혼란스러웠기에 아름다운 청소년에 선발됨으로써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보람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전 여전히 제가 갈망하는 것을 이룸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그는 꿈 지원금을 활동 중인 모임은 물론 금전적 문제로 중지해야 했던 점자프린터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키보드 개발에 사용하고 싶다 말합니다. 더불어 순수한 의지로 한국전에 참여했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께 작은 감사 인사라도 전달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깊은 그는 지금껏 품어온 열정을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천천히 세상에 꺼내 보일 계획입니다. 그러니 모두 지켜봐주세요.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창조적 혁신가로서의 CEO가 될 하성준이라는 한 사람을. [hstn](#)

##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너라서

의료문제아동이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간병 및 치료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중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가정은 고가의 치료비로 가족 전체의 부담감이 커져 치료를 중단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홀트는 이러한 가정에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너라서(이하 세젤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가 시급한 저소득가정 115명의 아동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홀트를 통해 입양된 6살 정인입니다.



### 난치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

정인이는 입양 당시 심장에 횡문근종을 갖고 있어 주기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해야하는, 의료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었습니다. 심각한 질환에도 불구하고 정인이의 양부모는 기독교 신앙을 삶에서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해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온 가족이 사랑과 정성으로 정인이를 보살피며 심장의 종양은 점점 호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2012년 8월경 정인이가 갑자기 경기를 시작하여 병원을 급하게 찾았고 뇌 초음파 실시 결과 뇌에도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인이

는 이때 "결절성 경화증 및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난치성 희귀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소아기에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간질로 여러 형태의 경련과 발달부진, 총동조절 장애 등의 행동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정인이는 또래에 비해 1년 이상의 언어·인지·정서 발달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2015년에는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인이의 가족은 정인이가 조금이라도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며 감각통합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가능한 모든 것을 했지만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정인이는 뇌에 생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정인이를 응원하며

정인에게 장기간의 약물치료보다 수술을 통해 경기증세를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정인이의 부모님은 고액의 수술비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홀트는 이런 정인이의 부모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정인이는 의료문제아동 지원사업 '세젤소' 지원아동으로 선정되어 의료비를 지원받아 바로 뇌파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이후 지난 7월에 2회에 걸쳐 경기파가 나오는 뇌의 결절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인이의 뇌에 수많은 결절이 분포하고 있어 예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술 후 언어 사용 능력이 저하되지 않았고 평소와 다른 것으로 볼 때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정인이는 수술 이후 경기가 발생 하지 않아 퇴원을 해 온 가족의 사랑과 정성 속에서 건강하게 회복 중입니다. 수술 예후가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다면 정인이는 경기를 하지 않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며 인지, 정서 및 학습 등의 발달도 정상 수준으로 진행되어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인이의 부모님은 '세젤소' 덕분에 수술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무엇보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 홀트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정인이의 앞날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정인이의 가족들이 힘들 때 함께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글\_정지수 · 복지전략팀



1 뇌 결절제거 수술 후 회복 중이 있는 모습  
2 약 먹는 시간이 제일 싫다는 정인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너라서"  
홀트는 의료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의 행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의 02-331-7152(복지전략팀)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 체구는 작지만, 나는 봄처럼 화사하고 당당한 엄마입니다

캠거루스토어 서울점 라봄 씨

‘라봄’. 이름이 참 독특하고 예뻐요.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 “봄에 태어나서,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아빠가 지어 주셨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가끔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렇게 예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며 마음 아파하시지만, 봄이 씨는 요즘 다시 삶의 기쁨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캠거루스토어를 찾아가시면 누구보다 화사하고 당당한 미소로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 그녀는 아버지, 딸 라희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큰소리로 웃고 떠들었지만 ‘어머니도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을 걱정하시면서도 결국은 그녀를 응원하는 길을 선택한 아버지와 달리 엄한 어머니는 아직 그녀와 아이를 볼 용기가 없나봅니다.

“임신 7개월째에 들켰어요.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약속하고 미혼 모 시설에 들어갔지만 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움직임이 느껴질수록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제가 키우겠노라 선언했고, 말 그대로 집이 발칵 뒤집혔죠. 아버지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도중에 너무 힘이 들어 다시 입양 보내려 할까봐 걱정하셨지만 결국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부끄럽지만 딸이 9개월 때 딱 한 번, 그녀는 아버지의 걱정대로 입양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육아가 이렇게 힘들다니, 그게야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는 그야말로 지옥을 넘나드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한번은 아이에게 분유를 잘못 먹이는 바람에 중환자실에 실려가 기도 삼관까지 하고 가까스로 살아난 적이 있는데, 이후 저산소호흡증으로 발달 지연 판정을 받고 재활치료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 폐가 많이 망가진 탓에 아이는 지금도 호흡기가 약하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18개월짜리가 14~15kg에 육박할 정도로 튼실하게 자라고 있다며 봄이 씨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솔직히 제 딸이 예쁘진 않지만 엄청 귀엽지 않아요? 제가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못생겼던지, 할머니가 절 보며 그러셨대요. ‘인증이 짤 예쁘다!’ 하하. 거기에 비하면 우리 딸은 천사죠~”

얘기하는 내내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그녀. 영락없는 엄마죠?

### 라희 엄마, 그리고 여자로서의 나를 찾아가는 시간

캠거루스토어를 애용하는 고객들은 봄이 씨를 친구나 딸 대하듯 합니다. 간식거리를 건네는 건 물론, 라희에게 필요할 만한 물건들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양육에 관한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봄이 씨도 그들을 친구처럼 여겨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배우자의 흉을 보면 함께 맞장구를 치거나 조언을 해주기도 하죠. 그렇게 고객들과 돈독한 신뢰와 친밀함을 쌓다 보니 매출이 오르고 스퀘어 제의를 받는 경우까지 생겼다고! 능력이 제법 뛰어나죠?



“별다른 노하우는 없어요. 판매는 처음이라 최대한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게 전부예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제가 그 분들께 받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홀트에서 열여섯 아이의 돌잔치에도 정말 많이 찾아와주셨고, 무엇보다 ‘용기’라는 소중한 걸 주시거든요.”

불만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지만, 그녀는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 많이 위축되면서 심리상담까지 받게 됐지만, 캠거루스토어에서 일하는 동안 다시 자신감을 찾으면서 밝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그 기운이 제게 스며든 것 같아요. 특히 홀트 선생님들, 정말 좋아요. 회사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여기처럼 가족 같은 데는 없었어요. 제 고민을 많이 들어주시는 건 물론 회식이라도 하면 꼭 챙겨서 가져다주시고, 회장님도 종종 내려오셔서 말씀을 건네시곤 하세요. 근엄하신 것 같지만 유머러스해서 대화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우울함이 걷히고 밝은 성격이 다시 나타날 수밖에요. 전 여기에서 가능한 한 오래 일하고 싶어요. 가족 같은 이들과 함께.”

캠거루스토어 근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봄이 씨는 곧 간호조무사 자격증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와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당당히 서고 삶을 가꾸어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희 엄마’이기에 앞서 그녀는 아직 많은 꿈을 꾸고 이를 수 있는, 꽃다운 20대 ‘라봄’이니까요.

# 하쿠나 마타타라고 노래해요!

## 탄자니아 홀트드림센터 개소식

세렌게티의 나라 탄자니아에 가기 위해선 총 16시간이 넘는 비행을 거쳐야 합니다. 라이온 킹에 나왔던 드넓은 초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인도양의 바다를 접하고 있는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보석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비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접근성은 멀지만 탄자니아에 홀트드림센터 문을 연 것은 바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싶은 열정으로 홀트드림센터의 문을 두드린 그들의 소식을 탄자니아에서 전합니다.



## 아프리카의 보석 탄자니아

탄자니아 전체 인구는 약 5천 2백만 명으로 한국과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평균 연령이 17.6세인 매우 젊은 나라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여성의 최초 출산 연령이 19.6세이며 모성 사망률, 영아 사망률 모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들이 그렇듯 탄자니아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HIV/AIDS) 누적 감염인구는 140만 명(2016)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CIA the world fact book).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계층을 제외하고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는 탄자니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아이들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하쿠나 마타타! 아이들의 노래

현재 탄자니아 홀트드림센터가 위치해 있는 탄자니아 연합대학 캠퍼스(United Africa University of Tanzania)는 38만 평의 넓은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다에르살렘 공항에서 내려 배를 타고 건너야 갈 수 있는 멀고 험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다리가 놓여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탄자니아 연합대학 안에는 여러 학교, 부속기관들이 협력하여 일하고 있는데, 홀트는 용인 제일 교회의 배려와 도움으로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용인 제일 교회에서 운영하는 IV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 하면 타고난 춤과 노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탄자니아 홀트드림센터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개소식 때 부를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기대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게 화음을 넣어 멋진 노래를 부르고, 또 아이들은 리듬에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스와힐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사의 뜻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하쿠나 마타타'라는 단어는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쿠나'는 '없다', '마타타'는 '문제'라는 뜻으로 '괜찮다. 좋아. 문제없어'라는 뜻입니다.

사실 탄자니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가 많은 나라로 보였습니다.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집안 살림도 하나도 없는 어두컴컴한 방 하나에 7, 8명의 가족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이 없어 집 앞 공터에서 주워온 나무에 불을 피워 우갈리(옥수수 가루 죽)를 만들어서 먹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하쿠나 마타타라고 노래하는 순수한 아이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 불만인 우리의 삶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1 탄자니아 홀트드림센터 개소식을 축하하며  
2 홀트드림센터 아이들과 함께

'하쿠나 마타타!'라고 노래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후원자가 생기면 아이들은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고, 어린 나이에 임신하여 학업을 그만두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탄자니아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한 바람을 담아 노래해봅니다.



# 세계 장애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패럴림픽은 신체장애인 올림픽 대회입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적·발달 장애인이 출전하는 스페셜 올림픽, 청각장애인 올림픽인 데플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홀트는 지난 6월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는 치료와 재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포츠를 통한 사회참여, 자아실현이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1988 서울에서 2018 평창까지

패럴림픽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하반신 마비를 의미하는 '패러플리제(paraplegic)'와 '올림픽(olympic)'을 합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점차 장애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동등한'을 의미하는 '패럴렐(parallel)'에 올림픽이 합쳐져 지금의 패럴림픽이 되었는데요. 패럴림픽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의 재활운동 차원에서 양궁대회를 개최한 것이 모태입니다. 이후 1976년 제 1회 스웨덴 오프홀츠보르크 동계 패럴림픽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패럴림픽이 알려지게 된 건 88서울올림픽의 역할이 컸습니다. 코리아나, 호돌이, 올림픽 성화 뿐 아니라 88 서울올림픽이 특별했던 이유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도시에서 열린 최초의 대회였다는 사실인데요. 1988년 서울 대회 이전까지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열렸지만, 이 관행을 깬 것이 1988 서울 대회였기 때문이죠. 1988 서울 패럴림픽은 개·폐회식을 포함해 모든 경기의 시설을 올림픽과 공동 사용했고, 올림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성화 봉송 행사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 편견 없는 사회를 꿈꾸며

서울 패럴림픽대회 이전 9만 명 정도였던 국내 장애인 등록인구가 대회 이후 6개월 동안 5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이 달라진 것도 88년 서울 대회가 남긴 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장애인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어 접근성이 개선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물론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다

고 할 수는 없지만, 1988년 서울 대회를 계기로 사회 인식이 달라지고 법 제도가 보완됨으로써 요즘은 전국 어디서든 점자 블록과 장애인 화장실과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서울 패럴림픽대회가 열리지 30년 만에 우리는 다시 평창 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 한계에 도전한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평창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턱없이 낮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평창 패럴림픽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에 불과했습니다.

홀트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을 향한 우리 사회적 인식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1988 서울 패럴림픽이 장애인을 위한 하드웨어적 변화를 이끌었다면 2018 평창 패럴림픽은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소프트웨어적 혁명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갈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홀트

자료 제공\_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1



2



3



- 1 인종과 지역 그리고 장애를 뛰어넘는, 평화와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표현한 패럴림픽의 엠블럼
- 2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 3 2018 평창 패럴림픽데이에 참여한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 나눔의 역사에 대해 말하다 설민석과 함께 쓰는 '나눔역사'



선행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어려움을 미루어 다른 이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일. 넬슨 만델라, 유일한 박사, 오프라 윈프리, 닉부이 치치 그리고 오드리 햅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겪었던 불우한 과거를 잊지 않고 다른 이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일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선행은 '나눔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인만 나눔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도 누군가에게는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국민들과 함께 하는 나눔의 역사 쓰기. 홀트와 설민석 강사가 함께 합니다.

## 나눔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일

한국사의 대중화를 이끄는 설민석 강사와 홀트의 인연은 작년 연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설민석 강사가 대표로 있는 태건에듀와 도서출판 휴먼큐브는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전쟁의 신 이순신' 등 천만 원 상당의 도서 7백 권을 기증했습니다. 이 도서는 연말연시 저소득 가정과 아동보호시설의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설민석 강사는 아이들뿐 아니라 홀트 직원들에게도 따뜻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기증식 당일, 소감을 묻는 말에 "시련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역사적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 책을 읽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사회가 뒤숭숭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홀트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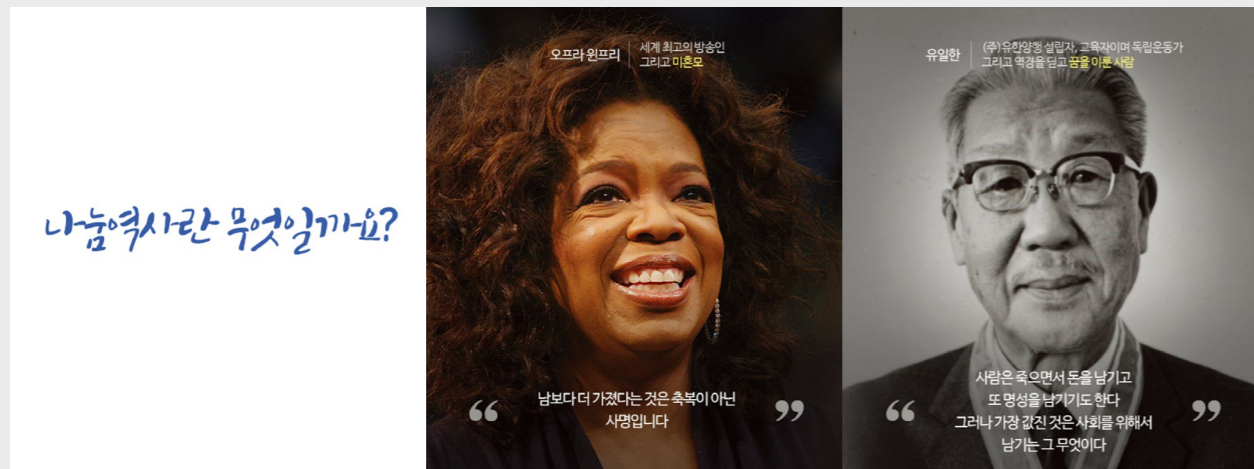
이날의 인연은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네이버 해피빈에 '설민석과 함께 쓰는 나눔역사'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캠페인은 국민 모두가 진정한 나눔역사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공익캠페인입니다. 설민석 강사는 캠페인 영상에서 '역경을 딛고 다른 이에게 나눔을 실천했던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나눔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후원 참여자를 초청하여 '나눔 역사 오픈파티'도 진행했습니다.

## 평범한 사람들이 행한 작은 실천

네이버 해피빈에 '내가 받았고, 또는 주었던 아름다운 당신의 나눔 역사'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무려 5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홀로계신 어르신에게 후원물품인 선풍기를 드렸는데, 본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라고 반납하셨습니다. 그 선풍기를 더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시는 어르신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방과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노약자를 보면 지나치지 않고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색의 나눔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특별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쉽고, 소소한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위대한 영웅, 유명인, 승리자의 역사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기술한 최초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어느 위대한 아니 특정한 영웅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남길 수도 없고 남기지도 못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바뀐다."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듭니다. 적선이 아닌 나눔을 실천하는 일, 함께해주세요.(캠페인 참여는 홀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글\_신유정 · 홍보팀



## 아가야, 너의 첫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 한화케미칼

사랑하는 아이의 첫 생일이 오면 부모님은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를 엽니다. 아이에게 예쁜 돌 옷을 지어 입히고 잔칫상을 차리고 돌잡이를 하지요. 함께 모인 축하객들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 것을 함께 기뻐하고 앞날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홀트에는 친부모와 첫 생일을 맞이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첫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케미칼입니다.

매월 열리는 돌잔치 당일, 한화케미칼 직원들은 아이들을 위한 축하카드를 적고, 직접 준비한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돌잔치에 빠져서는 안될 맛있는 간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여기에 '베이비뮤즈'의 돌상차림과 '필그라피'의 돌사진 촬영이 더해져 아이들의 돌잔치는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되자 위탁모들이 첫 생일을 맞은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 둘 행사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날만큼은 위탁모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놀아주고, 돌옷도 예쁘게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들과 위탁가정의 소중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선물도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의 한 번뿐인 첫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음을 기뻐하고, 아이들이 좋은 가정을 만나 지금처럼 예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화케미칼의 봉사를 더욱 값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홀트의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담백 먹고 자란 아이들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화케미칼은 홀트일산복지타운 장애아동 돌봄 및 입양가정지원센터 통번역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입양대기아동 돌잔치 후원·봉사를 통해 아이들의 소중한 날을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화

글\_이예스터·나눔협력팀



## 결식아동 지원사업 '행복배달'

### 롯데지알에스(GRS)

아동들에게 방학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더운 여름 시원한 곳으로 휴가를 가거나 가족들과 모여 신나는 추억을 만드는 귀중한 시간이 바로 방학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시간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리 행복하기만 한 시간은 아닙니다. 결식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그러할 겁니다.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 겪어야 할 마음의 상처는, 아이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한 대가로는 너무 큼니다.

이런 결식 위험에 처한 아동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20일, 홀트와 롯데지알에스(GRS)가 함께 전국 5개 복지관 약 2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햄버거세트 10,000개와 다양한 롯데지알에스(GRS)의 상품 등을 지원하는 '행복배달' 후원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행복배달' 사업은 결식 위험이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방학 중 언제든지 전화로 롯데리아의 홈서비스를 이용하여 집에서 편리하게 제품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롯데리아 라이더와 직원이 함께 도움을 주며, 그 외에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나뚜루팝 등 햄버거 이외의 제품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만 두고 일하러 가야 해서 먹을 것 준비하는 게 늘 힘들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내일이 아이 생일이예요. 늘 미안하고 부족했는데 멋진 선물이 되어서 참 감사해요!" 결식이라는 어려움을 정서적으로 어루만지는 따뜻한 선물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번 롯데지알에스(GRS)의 결식지원 '행복배달' 사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운영되며, 내년 2월까지 더 많은 결식아동들에게 든든한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특별한 방학이 계속되길 바라며 롯데지알에스(GRS)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기대합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 '행복배달'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

글\_채성현·나눔협력팀



# 작은 손길, 큰 사랑 희망을 나누는 봉사 '어우러지기'



2014년 8월의 뜨거운 여름, 전주영아원에서 어우러지기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오셨다며 환하게 웃는 '어우러지기' 회원님의 미소가 한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3년 전 처음 시작된 봉사활동의 인연은 2017년 지금까지도 매월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 비타민 영양제처럼 건강하고 즐거운 봉사

어우러지기과 봉사활동을 처음 계획했을 때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과 지원을 위한 야외활동에 도움을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실외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외에서 이뤄지는 활동인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장소 선정, 1:1봉사자 지정, 간식 준비, 시간 배분, 차량 확보 및

유아카시트 준비 등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매회 일찍 영아원에 도착하여 아이들에게 정겨운 인사를 잊지 않고, 출발을 점검하는 모습에 감동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올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진행했던 봉사는 눈썰매장, 어린이도서관 견학, 숲 산책, 놀이터 체험, 물놀이장입니다. 매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님들을 아이들도 기억하고 잘 따라 주어, 눈과 입과 몸이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희망을 나누는 동행자, 어우러지기

어우러지기는 2004년에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방문·봉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적인 도움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인터넷 카페모임입니다. 카페 회원 수는 740여 명 정도로 고등학생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20대에서 40대 초반 회원들이 주축을 이루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조화되어 한 덩어리나 한판울 크게 이루게 되다'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여럿이 모여 순수한 열정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요.

정기봉사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전주영아원의 아이들을 위한 야외활동 인솔 및 지원을, 셋째 주, 넷째 주에는 다른 복지시설에서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으면 월별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특별봉사로 연탄봉사, 재가봉사, 김장봉사활동 같은 것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영아원을 매개체로 봉사활동을 하며 소감이나 느낌을 공유하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 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인연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한지연

글\_김지연·전주영아원



1 건지산 임금님숲으로 소풍가는 길  
2 아이들과 함께 한 어우러지기 회원들

## 미니 인터뷰 (어우러지기 이진구님)

### Q. 전주영아원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은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

매순간 소중한 시간과 아이들과 함께했던 물놀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3세 이상의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는 큰 봉사활동이어서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필요했고, 준비하는 과정과 활동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정말 신나게 즐겨졌고, 많은 회원들과 영아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감사한 봉사활동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 Q.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주영아원 아이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보육원으로 갑니다. 그 사실 중 현재 한 기관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으로 간 아이들은 만날 수 없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주에 있는 두 보육원을 모두 방문하여서 영아원에서 시작된 아이들과의 인연을 끝까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응원과 위로가 아이들의 삶에 잘 전달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사회공헌

루치펠로코리아와 사회공헌 협약식



8월 7일 덴탈케어 브랜드 루치펠로코리아와 사회공헌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루치펠로코리아는 저소득가정, 미혼한부모 가정에 치과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한국여성스포츠회와 사회공헌 협약식



7월 10일 한국여성스포츠회와 사회공헌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윤희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을 비롯하여 양영자, 한윤자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국여성스포츠회는 앞으로 저소득 아동에게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등 복지사업에 적극참여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육아용품 지원사업 협약식



미혼한부모가정에 양육물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협약을 7월 10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억원 이상의 양육물품을 500명의 미혼한부모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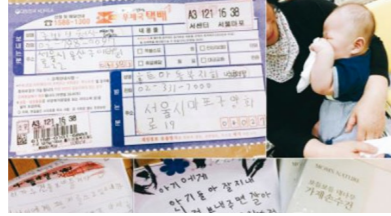
모집 및 선정은 총 5회에 걸쳐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올리브영과 3천여 만원 후원금 전달식



7월 1일, 올리브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3천여 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뷰티풀 맘스 데이'(미혼한부모 자존감과 양육의 지 고취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올리브영은 '뜻깊은 나눔활동을 하게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방부청사 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나눔



7월 국방부청사 어린이집에서 가재수건과 편지를 전해왔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바자회 수익금으로 선생님과 함께 마련한 가재수건과 직접 쓴 편지는 홀트의 양육아동에게 전달되었으며, 어린이집 아이들의 정성에 많은 이들은 감동을 받았다.

본부

SK 와이번스, 희망더하기 캠페인

8월 27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펼쳐진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올 시즌 세 번째 희망더하기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주제는 '국외 입양인 친가족 찾기'로, 국외입양인의 사연과 정보를 공개하고 가족찾기를 진행했다.



2017 꿈동이 리더십캠프



위기가정아동 교육비 제공 프로그램인 '꿈과희망지원' 대상자 꿈동이들과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에서 리더십캠프를 진행했다. 이날 캠프에는 홀트 고객후원자 탐리더스 회원과 선 홍보대사가 참여해 꿈동이들을 응원했다.

제 11회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 시상식



8월 10일 '제 11회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 시상식이 열렸다. 아름다운 청소년 시상식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위해 도전하는 진짜 청소년(靑少年)을 찾아 격려하는 자리로, 아름다운 청소년으로 선발된 청소년 8명은 꿈 지원금 3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국외 입양인 카메론 '홀트에 감사'



7월 12일 용산 미8군 기지 내 드래곤힐에서 카메론(카메론 송 셸러스)대령의 진급식이 열렸다. 진급식에서 카메론은 "버려졌던 나를 보살펴준 말리 홀트 이사장과 조병국 전 원장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카메론은 1968년 기아로 발견,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

위탁모 사진공모전 시상식



6월 21일 입양사업실 아동양육팀에서는 위탁모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중한 기억 속의 너'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방사무소

대구사무소, 노보텔멤버서더 후원물품 전달



7월 28일 노보텔멤버서더 대구 임직원은 대구 사무소를 방문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후원받은 물품(선풍기, 아이패드)은 대구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인 나눔실천 캠페인 '아이사랑곳간' 현판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부산사무소, 아이젠트리 후원금 전달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안경원 (주)아이젠트리는 각 지점 및 고객들의 이름으로 후원을 모금하였고, 7월 21일 그 기금을 부산사무소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위탁아동의 양육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충청사무소, '행복당당가족 시즌2' 실시



충청사무소에서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행복당당가족 시즌2'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입양가족의 역량을 강화한다.

인천사무소,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와 업무협약식



8월 8일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와 저출산 문제해결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활동을 홍보하고, 환경조성 등에 관한 활동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강원사무소, 철원에서 홀트가족사랑예배 열어



8월 2일 철원 담터수양관에서 서울후암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홀트가족사랑예배를 진행했다.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일산복지타운

'Love In Action' 페스티벌



6월 23일 재활기금마련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Love in Action' 페스티벌이 열렸다. 축제에는 기업과 각 봉사팀이 참여했으며 GS리테일에서는 판매금액과 더불어 후원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로 얻게 된 수익은 전액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다.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 정책세미나 개최

7월 21일 일산동구청에서 '장애인복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약 8천 명의 장애인과 4회에 걸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 일자리 창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보제공 노력 확대'등 5가지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복지관, 맥치과병원과 전달식**



8월 14일, 복지관에서는 제4회 맥치과병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맥치과병원 조영준 원장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하며, 매년 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운봉복지관, 복지장터 실시**



6월 20일, 해운대구청과 연계하여 2017년 복지장터를 실시하였다. 735명의 지역주민들에게 무료중식(자장면), 우산수리, 칼갈이, 미니 바자회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만족하였고, 성황리에 장터가 진행될 수 있었다.

**하남복지관, 여름방학 특별체험활동**

관내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대법원, 국회의사당, 서대문 형무소 등 다양한 곳을 견학하며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었다.



**수영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식**

7월 27일, 복지관의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천여명의 주민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수영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본리복지관, 어르신 마음 탄탄교실**



6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된 어르신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인 '어르신 마음 탄탄교실'을 진행했다. 총 8회기에 걸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은 다양한 미술활동을 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粥, 미국 모국방문단 방문**



6월 25일, 자신의 뿌리와 친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입양가족들이 아침粥을 찾았다. 모국방문단은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서를 체험한 후, 아침粥 미혼한부모들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고운돌, 여름맞이 물놀이**



고운돌에서는 한여름 더위를 피해 7월 15일, 이천의 테르메네로 미혼한부모와 아동 17명이 물놀이를 다녀왔다. 날씨가 기쁘게 적은 미혼한부모와 아동들은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름돌, 미혼한부모 국가자격증 취득**

미혼한부모 2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기 쉽지 않았음에도 자립을 위해 힘겨운 과정을 꿋꿋하게 견뎌내고, 좋은 결과를 성취했다. 나아가 두 사람의 취업 성공을 위해 힘찬 응원을 보낸다.

**대구클로버, 독서코칭 프로그램 진행**



매주 목요일, 자녀를 위한 독서코칭 교육을 진행했다. 독서코칭은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춰 아이와 책을 읽으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미혼한부모는 수업을 들은 후 직접 자녀에게 실천하고 있다.

**대전클로버, 일일찾집 및 바자회**

6월 8일 새마을회와 함께 일일찾집과 바자회를 열었다.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며 미혼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광주클로버, 건강한 반찬만들기 요리 교실**

7월 21일 김옥심 김치명인의 재능기부로 요리교실이 진행됐다. 이날 김옥심 명인은 제철음식으로 만드는 요리를 선보이고 만드는 방법을 교육했다. 요리교실은 매주 목요일 주 1회 진행되고 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음악표현 놀이활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모-자녀 음악표현 놀이활동을 6월 중순까지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을 가져왔다.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열린 아버지 학교'**



아버지 역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아버지 학교' 교육을 육군 제2군단 사령부 교육장에서 8월 3일까지 진행했다. 가족과 소통하는 아버지가 되는 방법, 캔들과 방향제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많은 가족들의 호응을 받았다.

**전주영아원**

**아이들을 위한 생일잔치**



7월 셋째 화요일, 그 달의 생일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생일잔치가 열렸다. 직원들과 후원자들은 아동을 위해 과일, 케이크 등을 마련해 함께 나누며 아동을 축하했다.

**어린이집**

**중동어린이집, 도서관 나들이 발표회**



7월 15일 만 5세 아동은 5주 동안 준비한 작품을 전시하여 발표회를 가졌다. 전시물은 '동화속 인물 코스프레', '가족과 함께 책 만들기' 등이었으며, 이날 부모님은 그동안 열심히 책을 읽은 자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포어린이집, 여름캠프 진행**



어린이집 아동들과 7월 14, 15 양일간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여름 캠프는 원내에서 진행되는 일정으로 요리활동, 물놀이, 에버바운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홀트어린이집, 양성평등 교육**



만 4~5세 원아들을 대상으로 아동양성평등교육을 가졌다. 이 교육은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했으며, 인사예절과 다식 만들기, 다도 예절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다.

**은방울어린이집, 물놀이 캠프**



7월 11일,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 원아들과 물놀이 캠프를 진행했다. 물놀이 안전수칙과 준비체조도 빼놓지 않고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심리상담센터**

**대구심리상담센터, 건강돌봄교사 교육**



6월 30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건강돌봄교사 심화교과 교육을 진행했다. '부모코칭, 감정코칭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나의 어머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홀트아동복지회, 사랑을 행동으로 60여 년의 기록’ 사진전

소외된 이들 곁을 묵묵히 지켜온 60여 년,  
홀트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 기간 : 2017.9.13(수) ~ 9.19(화) 11:00~20:30 (19일은 14:00까지)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광화랑(5호선 광화문역 지하보도 内)
- \* 관람료는 없습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 후원사업 소개

####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 미혼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 설민석과 함께쓰는 나눔역사



NAVER

홀트아동복지회



# KB손해보험과 함께 하면 희망이 **쭈뼛**

당신의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리 쭈뼛고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이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